

‘호남선 종착역’ 목포역 개통 100여 년만에 대변신 시도한다

역사 개선·철도시설 재배치·유휴부지 활용 등 모색

목포시, 호남고속철 2단계 완공 등 대비 용역 착수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역이 개통 100여 년만에 대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목포시가 비좁은 목포역사(驛舍) 개선과 철도시설 재배치, 유휴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자문단은 철도분야 전문가와 지방의원 등 7명 내외로 구성되며, 노후화된 목포역 시설개선 등을 위한 용역의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용역은 철도시설 재배치와 전동차 정비시설 구축, 노후화된 역사(驛舍) 개선 및 유휴부지 활용 등을 과제로 하고 있다.

현재의 목포역 내 철도시설 구조로는 호남고속철 2단계 완공과 인천·수원발 KTX 신설, 남해안철도 개통 등이 이뤄질 경우 여객·화물수송 등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게 목포시의 판단이다.

또 1913년 목포~학교간 개통으로 준공된 이후 1979년 7월 신축·완공한데 이어 2004년 4

월 KTX 운행으로 증축된 목포역사도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목포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원도심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목포역 유휴부지의 효율적 이용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역 유휴부지는 역사(驛舍)와 여객·화물취급시설, 객차·기관차 검수시설 등을 제외한 전체면적 19만414㎡ 중 90%가 넘는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목포시는 다음달 20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갖고 내년 6월 용역이 완료되면 목포역 시설개선 등을 정부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목포역 이용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쉼터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역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노후화되면서 시설개선, 유휴부지 활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역사 신축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사권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은 지난 8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자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대부 또는 매각 공고에도 5년 이상 활용되지 못한 유휴부지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어린이들 마스크 착용하고 가을 산책 28일 오전 광주 북구 문화근린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을 산책을 하고 있다.

이낙연 지도부, 내일 광주시 최고위...6일만에 다시 방문



국민의힘 견제 ‘뒷발 사수’
대권주자 지지율도 연동

내년도 예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뒷발 민심 공략에 나선다.

2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예정위원 등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장도 방문한다.

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5·18 기념식날 열린 이후 5개월만이다.

민주당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부지인 빛그린 산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민주당 광주 최고위는 애초 11월4일로 알려졌다나 앞당겨졌다.

이낙연 대표의 경우 지난 24일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뒤 6일만에 다시 찾는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호남민심 잡기를 위한 잇따른 호남 방문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도 뒷발 사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5·18 관련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데 이어, 이 달초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광주를 찾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지난 27일에는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지역 현안 지원을 약속했다.

1주일새 두번이나 광주를 방문하는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최근 대권주자 지지율과 연동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지난 8월29일 대표 취임 이후 2개월여 만에 광주를 찾은 이 대표가 6일만에 다시 광주를 찾는 것은 최고위도 최고위이지만, 든든한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의 지지세를 더욱 확고히 하자는 의지로 해석된다.

각종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까지

사와 앞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집토끼인 ‘호남’표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전략으로 비쳐진다.

이 대표는 그동안 외연확장을 위해 호남보다는 다른 지역에 공을 들여왔다.

최고위를 마치고 방문하는 빛그린 산단은 이 대표가 전남도지사 시절 공을 들인 산단인데다,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글로벌광주모터스가 들어선 상징적인 곳이다.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행보와 대권주자 지지율과 맞물려 민주당도 뒷발 행거기에 적극 나서는데 뜻하다”면서 “대권을 잡기위한 호남 쟁탈전의 단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